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지난 20년간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세력과 전문가를 결합해 다양한 현장을 기반으로 여성정치참여확대,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법과 정책뿐 아니라 각종 복지, 개혁입법의 제개정, 정책도입을 중심으로 운동 진행 • 그러나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운동형식을 뛰어넘어 대중들이 정치적으로 주체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운동 진영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여성운동 내에서도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여성운동의 조직화, 지역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신자유주의 및 개인주의가 일상적 보편 가치로 성장함에 따라 일반 여성들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여성운동'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현격히 낮아지고 있음→이런 상황에 따라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모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한국여성재단은 10년간 동일하게 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성평등&여성복지)을 진행함. 2011년도에는 변화하는 시민사회 운동의 지형을 반영하고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창의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공모를 도입하여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변화를 꾀함
2. 목표	1. 여성단체 고유목적 사업 지원을 통한 성평등사회조성 기여 2.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운동의 empowering 3. 사업 지원을 통한 여성운동 활동가 역량강화 4. 기획공모를 통한 여성운동의 다양성, 창의성, 활성화 모색
3. 진행계획	• 2011년 공모사업 준비→사업설명회 개최(3개 권역 진행)→공모 진행→심사 진행(사전심사, 서류심사, 최종면접, 최종선정 회의 등)→선정 결과 발표→교부신청서 접수 및 보완·검토→파트너단체 워크숍 개최→1차 사업비 지급→파트너단체 사업관리→중간보고서 접수 및 검토→2차 교부금 지급→중간 현장방문→최종보고서 접수 및 검토→1년 사업평가 진행→결과보고서 제작→평가 작업 마무리 • 상시적 현장방문 진행, 관련 홍보 업무(웹레터, 계간지, 영상촬영 등) 진행
관계자 분석	1. 기부자 -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음. 매년 동일한 모금 아이템과 모금 방법을 진행하고 있어 기부금 증액이 쉽지 않음. 더불어 2011년도에는 글로벌여성리더십육성지원사업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액 중 일부로 진행하기 때문에 2012년 성평등 사업비가 감소될 여지가 있음 2. 파트너단체 - 자유공모에 10개 단체, 기획공모에 5개 단체 선정. 자유공모에서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를 제외하고 여성재단 지원 경험이 있

한민/4120 SK/CNW

○ CWS
○ 215 855 : 44. 21. 21. 03. 01

○ (51)
한민 ⇒ 215 855 - 44. 21. 21. 03. 01

估·反 /

2025/01/15

ଜାଣିବି ଜାଣିବି ମନ
ଏକ ଓ ଏକ ଥିବା ନାହିଁ

개선사항

- 100% (1/2) (1/2) (1/2) - 2h/ (1/2) (1/2) (1/2) /

이 기온의 분포; 등기온은 많은 기온, 대륙의 극지방이 가장 적은 boundary lines →

የአገር አቀፍ የፍትሕ ሚኒስቴር / የፍትሕ ሚኒስቴር 1000/1992፣ ፍትሕ ሚኒስቴር

• $\langle \sigma_H \rangle \rightarrow \langle \sigma_H \rangle_{\text{eq}} / \langle \sigma_H \rangle_{\text{in}} \sim$

• $\text{Ag}_2\text{S} \rightarrow \text{Ag}^+ + \text{S}^{2-}$ (aq) K_{sp}

• સરળતા → સરળતામાં જીવન + (1) જીવન સરળતામાં + (2) જીવન સરળતામાં
જીવન સરળતામાં જીવન + (3) જીવન સરળતામાં + (4) જીવન સરળતામાં

2145x → 2109xg :

인접성명치 → (5)장

also $\rightarrow$ representation $\Rightarrow$.

உயர்வு $\rightarrow$ தாழ்வு / உயர்வு /

$\frac{1}{2} \rightarrow$ செவ்வாய்
புதன்

SY.

2. 수시지원사업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수시지원사업의 특성상 긴급하게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계가 연대하여 대응할 이슈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정책 중심의 중앙 여성운동에서 풀뿌리, 지역형 운동으로 변화하면서 연대사업의 소멸, 긴급 이슈 및 아젠다 상실
2. 목표	1. 여성운동 및 시민사회계가 긴급하게 연대하여야 할 주요 이슈 지원 2. 신생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단체 존립 기반 마련
3. 진행계획	• 신청서 접수 → 배분위원장 선정 프로세스 진행 → 교부금 지급 → 파트너단체 사업관리 → 최종보고서 검토 → 최종평가 진행 → 결과보고서 제작(성평등 결과보고서에 반영) • 상시적 현장방문 진행, 관련 홍보 업무(웹레터, 계간지, 영상촬영 등) 진행
관계자 분석	1. 기부자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의 5%로 운영. 성평등사업과 마찬가지로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액 + 일반 기부자 모금 전체의 5%로 진행. 성평등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증액이 어려움 2. 파트너단체 - 수시지원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보다 지원단체의 확일화가 훨씬 심함. 적은 사업비로 인해 재단 자체적으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단체만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상황임.
개선사항	• 수시사업 선정 기준 부재 - 긴급 이슈, 신생단체 인큐베이팅 지원과 관련된 객관적인 개념 및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부재.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단체의 complain이 매우 심함. • 수시신청 소통과정에서 오는 혼선 - 수시지원사업의 경우 단체들이 사무총장에게 먼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이에 신청하면 곧 승인이라는 오해를 단체가 하는 경우가 있음. 더불어 선정 프로세스가 사무국 → 배분위원장 순서로 되면서 사무국이 심사 에 개입하는 정도가 단체마다 매우 다름
일정	첨부자료 참고

지원단 형식과 QM /

• 지원단 No =
 • 수시지원 → 인큐베이팅 기금의 5% /
 • 지원 ;
 • 3 page 지원 →

지원단

3. 태평양시설개보수사업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여성 생활·이용시설 및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단체 활동 공간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미약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 대중,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여성단체 및 시설의 특성 상 공간 마련 및 적합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2. 목표	1.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화장실 및 욕실 개보수를 통해 공간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 도모와 건강 증진 2. 여성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대안적인 여성전용 대안 공간(휴게실, 교육장, 상담공간 등) 창출
3. 진행계획	• 사업 및 예산 확정→협약식 개최→공모 준비→공모 진행→서류 접수→심사위원회 구성→1차 서류심사→2차 현장실사→최종선정회의→선정결과발표→사업설명회 개최→착공보고서 접수→1차 지원금 지급→각 단체별 공사 진행→완료보고서 접수→2차 공사대금 지급→정산보고서 접수→오픈식 및 현판식 진행→최종평가회의 진행 • 상시적으로 각 단체 공사일정에 따른 사업관리 • 관련 홍보 업무(웹레터, 계간지, 영상촬영 등) 진행
관계자 분석	1. 기부처(아모레퍼시픽재단) - 아모레퍼시픽재단과 함께 본 사업을 진행. 아모레퍼시픽재단 특성 상 기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심사부터 선정까지 적극적 개입을 원함. 2009년도에는 기부처와 여성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의사소통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 아모레퍼시픽재단은 본 사업의 담당자를 1년 단위로 바꾸고 있음.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가 초반에는 낮고, 이에 따른 소통의 문제 발생. -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주요 사회공헌사업이 본 시설개보수사업임. 특히 아리따움 인유에 대한 관심이 회사 자체에서도 높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됨 2. 파트너단체 - 해피스마일의 경우 단체가 직접 업체 및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단체 사정에 의해 늦춰지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아리따움 인유의 경우 디자인, 업체선정 등이 아모레퍼시픽 디자인팀이 주도할 하다보니, 단체 자체사업이란 개념이 낮음
개선사항	• 사업명 변경 - 시설개보수라는 다소 딱딱한 사업명을 변경(아리따움 change up)하여 보다

• 아리따움 디자인팀 → 사업 관리팀 ~

	더 높은 홍보 효과를 누리하고자 함. • 하자보수 추가 공모 - 2010년도에는 현장방문과 더불어 전년도 선정단체 방문을 함께 진행하여 하자보수 상황 파악 및 지원을 진행함. 2011년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공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여 단체의 공간관리 능력, 하자보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일정	첨부자료 참고

○ 아파트관리인 하단임 / 리모델링비용 지원

○ 사업관리인 지원

○ 아파트 → 5년 /

⑤ 아파트 관리 / 관리 지원 있음 → central 관리 관리

관리: 리모델링 지원 /
(관리 지원금)

4. 장학사업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여성운동아카데미, 계명-유한킴벌리 여성리더십NPO과정)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 관점을 체화하고 여성 사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훈련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 여성활동가로서의 비전을 수립하고, 경계를 넘어 시야를 확장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NPO 여성활동가 육성이 시급함
2. 목표	1.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의 '전문성' upgrade 2.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활동가 재교육 체계 마련 3. 지역 여성활동가들에게 양질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기회를 제공 4. 활동가들에게 공익활동의 사회적 소명, 여성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및 비전을 수립하는 체계적 교육 제공 5. 여성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학업지원
3. 진행계획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 사업 및 예산 확정→장학생 공모→선정→장학생 발표→OT 및 장학기금 전달식 개최→1년 과정 운영→연구보고회 개최→연구결과보고서 발간 • 장학위원회 운영 • 관련 홍보 업무(웹레터, 계간지, 영상촬영 등) 진행 [계명-유한킴벌리 여성리더십NPO과정] • 사업 및 예산 확정→과정 홍보→수강생 선정→장학생 발표→개강식 및 장학기금 전달식 개최→과정 운영(1학기, 2학기)→수료식 개최 • 관련 홍보 업무(웹레터, 계간지, 영상촬영 등) 진행 [여성운동아카데미] • 미확정
관계자 분석	1. 기부처(유한킴벌리) - 2007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2009년도까지는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2010년도 사장 및 관련 업무 담당팀 임원이 교체되면서 본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의 판도가 달라짐 - 장학사업 담당자도 교체되면서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 발생 2. 파트너단체 (계명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여성단체연합)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의 경우 2010년도부터 정규석사과정으로 개편되면

○ 6월 21일 2차 기획 회의 준비.

	서 본 과정에 대한 각각의 파트너들이 이해하는 지평이 매우 상이해짐 - 성공회대학교, 여연,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면서 학교의 권한, 여연의 권한, 재단의 권한이 서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여성운동아카데미에 대한 구상이 재단과 매우 상이함 - 처음으로 지역에서 시도한 리더십 과정의 경우 계명대학교(조주현 교수)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됨
개선사항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위상에 대한 합의 필요 - 석사과정 개편에 따른 변화사항과 이에 따른 역할의 변화 등에 대해 성공회대, 여연, 재단이 합의하고 본 과정을 끌어갈 필요가 있음 -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과정에 대한 운영 및 실무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본 과정이 여연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강한만큼 자칫 소통 구조가 재단(위원회)→여연 을 통해 모든 실무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 여성운동아카데미 - 본 과정에 대한 재단의 역할 모호(단순 사업비 지급처?) - 과정 태생의 역사에 대한 공감도 낮음 • 사업비 증액 - 2007년도부터 배분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5년 연속 동일 - 사업비는 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가지수만 늘어가고 있음 • 2012년 NPO리더십과정 기부처 발굴 - 2012년도에는 NPO과정을 호남권 혹은 강원권으로 옮겨야 함 -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연속성을 위해 지역 기부처를 발굴해야 함
일정	첨부자료 참고

○ 디자인 가능 / 디자인.

○ 성공회대 → 2015년 10월 15일 21일 28일 31일

○ 연세대학교 → 2015년 10월 15일 21일 28일 31일

5. LG이노텍 '희망멘토링'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저출산과 함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음 • 삼성, LG 등 다국적 대기업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공헌 포션을 높이고 있음 • 일방적인 한국사회의 통합 위주로 진행된 지원(지자체+기업 사회공헌)에서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
2. 목표	1. 다문화가정 자녀와 LG이노텍 임직원 멘토-멘티 연계하여 비전 제시 2.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장점을 살린 긍정적 정체성 형성 3. 임직원 봉사와 장학지원 결합 4.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
3. 진행계획	• 사업 내용 및 예산 확정→7개 권역 파트너단체 섭외→멘토링 및 코칭 참여 다문화가정 자녀 섭외→LGIT 멘토 및 코칭 모집·확정→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6개월간 멘토링 및 코칭 진행→모국방문 대상자 선정→수료식 진행(장학금 지급)→모국방문 진행 • 파트너단체와 상시적 소통 및 사업관리 • 관련 홍보 업무 진행
관계자 분석	1. 기부처(LGIT) - 2010년도부터 LG 자체가 사회공헌의 주요 분야로 다문화를 공표함 - LGIT CEO의 관심에서 본 사업이 시작되어 담당팀 및 임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격히 낮음 - 한국여성재단의 고유한 배분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2. 파트너단체 (각 권역 NGO단체)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모집하고 멘토링 코칭을 운영. 다문화 사업을 많이 진행한 단체들이라 큰 무리없이 진행 - 안산의 경우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음
개선사항	- 멘토링, 코칭 해당 임직원들의 충분한 사전 교육(다문화감수성) 필요 - 한 아이당 멘토링 코칭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코칭(고학년)과 멘토링(저학년)에 적합한 대상을 각각 선별→멘토, 멘티, 코칭 삼자간의 불편함, 혼란스러움 해소 - 참여한 모든 멘티들이 모국방문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닌 선별적 기회제공으로 인해 아이들간의 위화감 조성, 비용, 시기 등의 문제 발생. 추후 모국방문이 아닌 모든 멘티들이 참여하는 캠프(해외) 형식으로 진행 - 의사소통의 경우 LGIT와 한국여성재단의 역할 불분명. LGIT→권역단체→한국여성재단으로 소통이 되는 경우 발생. 의사소통 일원화 필요
일정	첨부자료 참고

⑥ 사업내용 → 2010년 4월 21일 1차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2차 회의

6.미혼모지원사업(미혼모당사자조직및활동가육성/영화지원/카페지원/긴급주거지원/모금사업)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트렌드)	•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다음으로 터부시되는 집단이 미혼모 집단이라고 함. • 학계에서는 90년 초반 이후 미혼모 연구가 없을 정도로 사각지대의 이슈였다가, 최근 저출산 정책등과 함께 미혼모 정책이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과 맞물려, 미국의 DR Richard Boas의 기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작년부터 연구물이 등장 • 여성재단에서는 현재 1>>문화운동 2>당사자조직및 활동가 육성 3>경제적 임파워링 사업 3>긴급지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여성재단은 지정기탁의 성격으로 기부자의 의도를 거의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었기에, 각 사업이 "왜 지원해야 하는가"대해 치밀한 검토는 없었음. 여성재단 뿐만 아니라, 미혼모조직 내부에서도 당사자의 이슈+ 여성주의적 가치를 잘 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재단 내 중점 변화 사항 : 2011년 부터 DR Richard Boas가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기금을 마련하면서, parallel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을 요청하였음(펀드레이징 계획 요청: 미혼모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활동가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자는 의도)=>이와 같은 경우, 성평등조성사업과 같은 별도 기금을 위한 모금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1년간 점점 커지는 미혼모 사업은 미혼모 별도의 분야 안에 여성재단 사업의 카테고리들이 내재해 있다고 볼수 있을 만큼 다양한 방식,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하게 됨
2. 목표사업의 현황	2011년 사업 • 1>미혼모 당사자 조직 및 활동가 육성 사업 미혼모가족협회 조직화 사업, 한국한부모 연합 당사자 활동가 육성사업 • 2>미혼모영화지원사업(문화운동) 미혼모 영화 제작 및 배급 지원을 통한 운동 • 3>경제 임파워링 미혼모여성 자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두리홈 미혼모자활을 위한 카페지원 "엔젤스토리"지원사업 • 4>미혼모 긴급주거 지원 사업 긴급 주거공간 마련을 통한 지원 • 5>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기금 조성 및 배분 사업 향후 방향 논의 중
3. 사업 진행 계획	○기부처 정보 제공 및 단체 매니징 • 2011년 1년에 8번 보고서 제출(4개의 사업) •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기금 조성 및 배분 사업: 기금 사용 방법 및 펀드레이징에 대한 보고서 요청 들어옴<부록참고> ○의사소통의 창구역할 외부기관 => 한국여성재단 => 미혼모가족협회 기부처, 관련기관 <=> <=>

관계자 분석	○기부처 • DR. Richard Boas: Boas Family Foundation을 기반으로 미국의 DR. Richard Boas가 한국사회의 미혼모 당사자의 인권 및 생활 환경 개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기부. 1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 한해동안 3억5천만원 가량 기부함. ○관련기관 • KUMSN: 한국에 있는 DR. Richard Boas의 사무실, 권희정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사무실 운영되고 있음.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을 맺기 전에 미혼모 지원의 Bridge 역할을 하였음. 현재, 관계 정립이 필요함(조형 이사장님 미팅 예정) • Foundation Source: 미국 회계법 및 재단 지원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 내용 검토 보다는 재단의 안정적인 회계나 의사결정 법칙의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심사를 거침. • Give2Asia: 미국에 본부를 둔 아시아를 지원하는 재단. 한국에 아시아 파운데이션 지부가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김혜영 박사의 연구진이 보아스 박사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함. 연구자적 입장에서 미혼모가족협회를 지지하고 있음. ○파트너 단체 • 미혼모가족협회, 한부모 연합: 미혼모, 한부모 당사자 NGO임. <u>한부모 연합은 2010년에 본부를 개소했으나, 민우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부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직력, 결속력이 탄탄한 편임. 2010년에는 한부모 당사자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컨텐츠가 풍부하여 기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짐. 미혼모 가족협회는 미등록 단체로 2010년부터 주 활동이 시작 현재 단체 등록을 앞두고 있음. 당사자 활동가로서 활동연수가 1년 정도임. 사업 진행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나 사업의 목표 자체가 당사자 조직, 활동가 육성에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함</u> • 구세군 두리홈: 기독교 단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 구세군 두리홈은 입양이 아닌 양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자인 보아스 박사가 기부를 결정. 현재 은평구에 앤젤 스토리라는 카페를 개점하여 사업을 진행중임. <u>사업의 목표는 미혼모의 자립이며, 실질적으로 두리홈의 미혼모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u> • 프로덕션 공방 : 프로덕션 공방은 NGO단체는 아니지만, 영화의 소재를 미혼모로 두고 있어, 미혼모 인식 개선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운동으로써 지원하게 됨. 실무에 있어 아직 NGO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총평 • 현재까지, 지정기탁의 성격으로 기부자의 의도를 거의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예) 영화지원 사업= 왜 지원해야 하는가, 어떤 영화인가에 대해 치밀한 검토는 없었음 • 더딘 성과 : 당사자 조직 육성이라는 특성/ • 한국여성재단의 위치 설정 명확해야 : 파트너 단체도 햇갈려 하는 점/ 여성재단 기금 지원 +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 ○개선과제 • 의사소통

	실무자=> 배분팀장 및 배분팀 =>총장, 이사장 2010년의 의사소통 관련하여 혼선이 있었음. 2011년은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해 모든 소통을 배분팀장에게 보고하여 진행할 예정.(이사장님) •파트너 단체 지지, 그리고 명확한 안내 미혼모가족협회에겐 지지가 필요하나, 조직화 및 활동 경험이 처음인 만큼 명확한 안내 역시 필요함. '실무적인 영역'에 있어 조언자의 역할 역시 필요한 상황임.
일정	첨부자료 참고

<별첨>

○2011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기금(가칭) 조성 및 배분 사업- 이사장님 논의 결과

•목적

리차드 보아스 박사의 75000달러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개인, 기업기부 조성을 목적으로 함.

•모금

개인기부: 만만클럽 등 개인 기부시 선택 가능 사항에 미혼모 인식개선 부분 추가

기업기부: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업접촉(다양한 기업 + 존슨즈, 분유회사 등 공략 가능)

어떤 프로젝트로 접근할 지 고민이 필요(예, 미혼모 교육권, 아이 돌봄 서비스, 미혼모 취업 등)

•배분

수시지원 방식 채택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운동 지원 등으로 포커스를 잡아 수시 지원 모집하여 교부신청서를 엄격히 고민(이와 같은 경우 전담 배분위원 + 전문위원 필요(이미정박사등 추천))

•홍보

2011년 홈페이지 개편 때 미혼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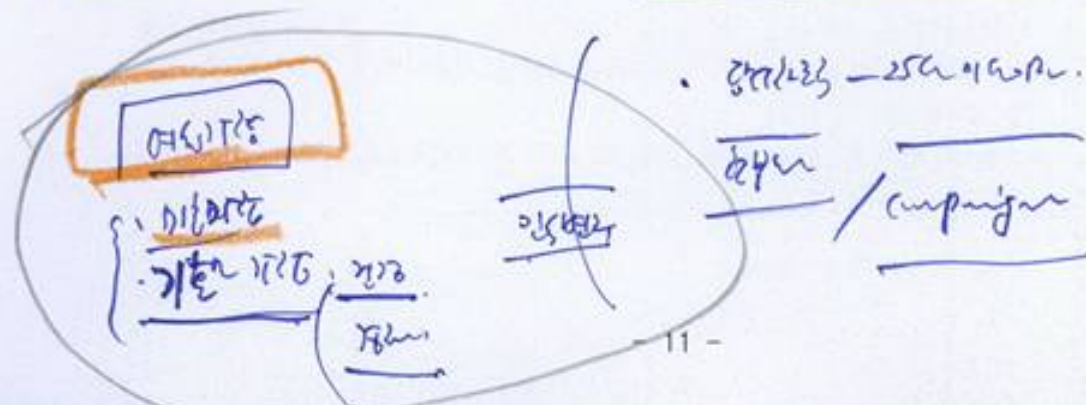
수시지원으로 미혼모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지정기탁형=> 지정기획사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함.

•기타

모금 등의 방식에서 기흥팀과의 논의 및 cowork필요함.

- 미혼모 인식개선 (가칭) - 제1기 ~ 2기 (2011년 1월 ~ 2012년 12월)
- 수시지원 : 미혼모 인식개선 (가칭) + 미혼모 인식개선 (가칭)



7. 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프로젝트(결혼이주여성지지프로그램/쉼터지원/상담원 육성/ 글짓기공모전)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다문화 관련 정부, 지자체, 기업, 재단의 사업은 다문화소위원회1차회의록 참고 • 다문화 안전망과 관련된 현황: 정부영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은 있으나, 기업은 '폭력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 민간(정부미지원 쉼터) : 서울행복, 대구이주여성쉼터,대구모자쉼터,아델의집 등 10여개의 쉼터 파악(1366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 쉼터)	
	이프라 구축 개요	세부 내용
	정부 지원의 쉼터 지원(2009)	2개소 당 약 1억 4천만원 지원 4명의 활동가 인건비 및 쉼터 생활비 지원 (2008~2010 다문화가족 안전망 프로젝트 지원 실적 포함됨)
	신규 쉼터의 개설(2009)	사회복지 공동요원회 지원 신규쉼터가 개설 전세비 및 물세비 지원 (2008~2010 지원 실적 중, 대구, 오산 실적 포함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화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 및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커버하기 어려운 가족통합에만 집중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국한 자체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내기 어렵음
2. 목표사업의 현황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화 (2009)	긴급전화의 성격상 긴급지원의 상담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상담 및 위기관리가 어려움
	•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중요시 살펴 보아야할 환경의 변화는 지난 3년과는 달리 기본 인프라가 구축 되었다는 점임 1>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1366을 통한 긴급지원 3>이주여성쉼터의 정부지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정부주도적 다문화 사업이 얼마나 여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외형적 접근법이나 방법론은 비슷할지라도 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에서의 사업이 여성주의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별성임 • 지난 3년 동안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족' '안전망' '여성' '폭력'이라는 다양한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 2010년에는 대상자의 수가 급증하였고, 다양한 주제의 사업(시어머니이주여성, 한부모이주여성,자녀)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 안전망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존감 향상, 네트워크 강화에 더 주력하고자 함.	
3. 사업 진행 계획	○전체방향: "가족"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보다 사각지대를 지원 • 지난 사업이 가족 관계 향상을 통한 여성의 지위 및 인권 보장의 방식을 취했다면, 이번 사업에는 "여성"의 임파워링(자조모임,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을 지지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함. •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를 기준으로 쉼터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이주여성을 지지하고자 함.	

	○ <폭력 및 갈등발생 전 Care> 결혼이주여성 지지 프로그램 지원 • 자조모임조성을 한국사회에 부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보금자리 조성 •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 ○ <폭력 및 갈등발생 후 Care> 정부미지원 쉼터 지원 • 신규쉼터를 중심으로 생활비, 의료비, 운영비를 제공하여, 열악한 쉼터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쉼터 내담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귀를 도움. • 지난 3년 간의 쉼터 지원 노하우를 기반으로 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신규쉼터간 네트워크를 결성하도록 도움.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생애위기 전반 Care> 결혼이주여성전문상담원 육성 및 상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문제발생부터 관계회복까지 지속적인 Caring과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전문 상담원을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함 •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상담원 교육 및 활동비를 지원함 ○ <사회전반의 다문화 인식 향상을 통한 Care> 다문화사회 조성사업 • 2011년 다문화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에게 다문화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계자 분석	○ 기부차-우정사업본부 • 사업범위의 핵심테마 '사랑나눔, 희망나눔, 그린나눔, 우정나눔' • 사업범주 1번- 장애인, 빈곤노인, 다문화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 문화 증진, 교육 및 자립기회 확대 등 사회복지 사업을 두고 있음.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여성재단과 다문화 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1년에도 여전히 다문화 여성을 사업 범주의 1번으로 두고 있음.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여성재단 외에 다문화 사업을 하는 파트너 단체로 두고 있지 않음. • <u>우정사업본부의는 전문적인 사회공헌팀이 아닌 보험기획팀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음. 국회 감사를 받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파트너단체에 사업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요청함</u> ○ 여성재단 • 한국여성재단은 다양한 다문화사업을 지속해 왔음. 특히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3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양, 질적으로 진화해왔음. 파트너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 다문화 관련 NGO •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단체는 크게, 가족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단체/ 이주여성 쉼터로 나누어 짐. Program 1의 파트너 단체는 2010년 가족교육 프로그램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청주를 대신할 1개 단체를 섭외할 예정(지역 배분 고려) • 이주여성쉼터는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이주여성 쉼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이주

	여성 쉽터로 나누어질 수 있음. 현재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10여개정도로 파악됨.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공모할지 등은 쉽터의 성격을 파악하여 결정할 예정
개선사항	• 비교적 많지 않은 사업비로 인건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컴플레인 이 많았음. 2011년에는 인건비(20%성평등 기준)와 사업경비에 대한 배려있는 사업 진행 필요 • 후원처(기업/ 개인 등) : 우정사업본부/ 정부 산하기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2011년에는 이 사업의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등을 공유하고자 하며, 2011년에는 의사소통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함.
일정	첨부자료 참고

8. 문화나눔 사업

	내용
1. 환경 분석 (이슈 트렌드)	• 메세나 협의회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협의를 맺고 기업은 후원을 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LG, CJ, 현대백화점, 포스코 50여개 후원) =>기업후원+ 안정된 문화예술단체 + 사회공헌의 WinWin 지향 • 한화 메세나 콘서트: 한화의 경우 한화메세나 콘서트라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클릭(돈이 아닌)으로 기부, 방문수를 통해 기부 티켓 수 결정됨=> 티켓 지원 =>기업은 홍보를 목표로/ 예술단체는 기금확보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2. 목표사업의 현황	• 한국여성재단은 문화나눔을 한화 메세나 콘서트나 협의회처럼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 현재, “기부자에게는 돈을 기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참여자에게는 문화와 삶의 혜택을 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핵심가치로 소규모 극장 + 대형 뮤지컬 공연 동시에 섭외를 하고 있음. • 2010년에는 1692개의 좌석을 확보하였음 • 홍보의 문제 :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함 •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연섭외
3. 사업 진행 계획	2011년도 2010년과 같은 사업 규모를 목표로 사업진행 • 홍보의 문제 : 뉴스레터, 계간지 외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 -메인홈페이지나 블로그 공연후기글 작성시 1인에게 좌석 기부등 기획사 Need에 맞는 홍보 필요. •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연섭외: 지방 공연 지속적 검색 및 섭외, 그리고 메세나 협의회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관계자 분석	○문화 기획사 • 문화 기획사는 공연의 노출, 홍보, 좌석의 확보의 목적+ 사회공헌의 마인드를 기반으로 문화나눔을 진행함. 현재 문화 기획사 공연 시장이 극 대형/ 극 소형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현황 • 극대형 공연의 경우에는 (예: 아이다)은 좌석확보나 홍보의 Needs가 여성재단을 대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공연 확보가 어려움. 소극장 공연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공연의 다양성 측면에서 대형공연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여성재단 • 문화나눔 기획사에게주는 혜택: 홈페이지 광고, 뉴스레터, 계간지(조아뮤지컬 컴퍼니 300석이상 기부), 기부금영수증 ○문화나눔 서포터즈 • 대학생 서포터즈로 학생들은 자원봉사 +사회 경험을 목적으로 시도 • 대학생의 특성상 변화와 결정의 이동이 많으므로 6개월 이상 서포터즈 활동이 어려움 ○문화나눔 신청자 • 문화나눔 참여자가 여성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들로 한정(장단점있음)

공헌금 → 나눔금 {리스크, }
{인정기부금도}

- 문화나눔 → 11월 24 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6개 지점 순회 공연

	•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분들도 있으나 문화나눔의 '소비자'로 보여지는 분들도 있음
개선사항	• 문화나눔 서포터즈 6개월 진행 • 홍보 아이디어 구축/ 클럽에서 블로그로 변경(네이버 검색시 등장할 수 있도록 8기에 블로그 능력자 뽑을 예정) -블로그에 공연 정보 및 포스터 게재 하고 댓글을 달아 공연기부 요청하는 방식? • 문화나눔의 전국화 시도(메세나 협의회 문의 및 요청)
일정	첨부자료 참고

2012.11.24

9.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사업명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1. 이슈, 트렌드	○글로벌, 리더십등의 기업의 관심 높음.(단, 키워드가 같을 뿐, 글로벌과 리더십의 개념과 관점은 다름) ○글로벌활동은 복지지원(우물과주기 사업 등)과 연수사업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음 ○그 중, 직접 아젠다를 셋팅하고 국제연계를 통해 이슈화/문제해결 등의 방식은 적지만 유의미한 시도들 진행(예: 코련의 사전교육프로그램, 동북아여성평화회의, CEDAW alternative report 및 로비활동 등)
2. 목표 (가치,철학)	○여성활동의 영역확대(국내이슈의 국제화, 국경을 넘는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 모색) ○활동방식의 변화(한국여성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넘는, 해외여성운동과의 조우, 성찰, 연대, 협력, 문제해결) ○국제여성운동이라는 주제심화(한국여성운동이 아시아 및 세계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해야할 역할, 심화되어야 할 주제로서의 글로벌운동, 여성리더십 등) ○후원처 발굴(지난 4년간 삼성의 후원 이후에, 새로운 단계모색 및 심화된 고민 필요) →고민점: 초점이 '여성활동가'의 리더십육성? 글로벌여성리더십? 글로벌여성운동지원? 모두 다?
3. 진행계획 (사업내용)	○1월~3월: 기부처 파악, 조사 및 2011년 글로벌여성리더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구조조정) 필요 -사업의 주제와 영역의 재구성 : 활동가를 키운다면 어떤 활동가를 키울것인가. 상을 정립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것 / 단채간 연계에 중점을 둔다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정보교류확산, 기존참여단체와 신규단체와의 만남) 등 모두 할 수 없으니 집중할 쟁점을 보다 구체화 ○4월: 4월 중으로 기부처 컨택 마무리. -만약 사업비 확보시: 예산에 맞게 기획 및 구성 -만약 사업비 확보하지 못할시: 5월 기부털레이 모금액 중 일부금액을 단체배분사업으로 공모준비

⑥ inf3 2014년 →

2014년 10월 10일

2014년 10월 10일

give 2014년 10월 10일

	○5월: 공모사업 진행 ○6월: 발표 ○7월-12월: 사업진행. **2010년 글로벌사업의 정리 마무리등은 올해 5월까지 지속진행됨. (온라인아카이브를 비롯, 글로벌총괄보고서, 배분영상, 아카이브영상, 단체보고서 최종취합정리, 모금회 보고서 제출 등등)
4. 관계자 (재원-기업, 후원자/ 파트너/재단)	○기부처: 삼성은 이미 정리한 상황. (삼성 사회봉사단과 현재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데, 글로벌은 끝났지만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은 어떨지 고민됨. : 현재 기부처의 needs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안) ○파트너: 글로벌사업에 대한 커져가는 욕구 및 구체화되어가는 사업 (한소리회, 여연, 여협,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전실련, 코론 등)등을 제안함. ○재단: 글로벌사업에 대한 후원이 중단되었지만, 진행되던 사업의 후원이 끊겼다고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함. 특히나, 정관상에 기재된만큼 여성재단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로 여성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5. 개선사항 (2010건의사항 +개척해야할 부분)	○내부 관계자와의 소통: 후원처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추후 모금과 연계하여 관계하는 팀과 함께 논의 필요(중단한 후원처의 사후관리 포함) ○감수성과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연수등의 짧은 기간 참여형 프로그램보다 장기간(6개월 이상)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구조.
기타	글로벌사업은 끝 / 글로벌사업 55 → 1. 2014년 10월 10일 (1) 10월 10일 → 10월 10일 ; 10월 10일 2014년 10월 10일

10. 생명보험기금 - 다문화가정직업창업지원

사업명	생명보험기금 - 다문화가정직업창업지원
1. 이슈, 트렌드	○전반적인 직업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다문화가정의 경제력, 경제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 확장(여가부에서도 직업화 노력 시작, 연구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단, 초기단계임. ○각 지역별로, 다문화공동체를 사업화하는 방식(예: 다림촌, 뗏다 무지개, 공방촌, 다문화강사양성 등) ○여성들의 경제세력화 vs 남편 및 시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전환 필요 (경제적 갈등)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언어문제와 경제문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혼 주요사유: 폭력, 경제적 갈등
2. 목표 (가치,철학)	○사회통합모델로서의 공동체 창업(3개지역*10명) ○경제적 임파워먼트가 가능하도록 지속력이 담보되는 직업화(5개지

2014년 10월 10일

fundamental

② 여성경제사업 : 대안 → 8월 / 5월
 (5월)

여성경제사업

현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회의
 (대안 → 여성경제사업
 추진+추진)

⇒ 대안4가지... '여성경제사업'

2차 회의 준비

3. 진행계획
 (사업내용)

여성경제사업

6월 4차 회의 : '추진'

	역*20명)
	○사업기획: 배분팀+여성경제사업팀 함께 논의하여 전반적인 사업프로세스 설정 필요 -직업창업에 대한 전문컨설팅 내용, 시기, 초기셋팅에 대한 자문, 자문인력, 지역자원 활용, 유통, 마케팅, 홍보 등 + 다문화적 특성을 마련한 경제임파워먼트, 지역공동체(사회통합을 위한)성을 유지하는 방향, 지역단체가 매개가 되어 진행, 다문화감수성을 살린 ○사업광고: 사업광고-서류심사-현장실사/방문-심사위원회-최종선정 -심사기준: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사업성, 수익창출가능성, 모델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진행 필요 -심사위원: 다문화소위+취업창업관련 전문가(여성경제사업팀 추천 혹은 다문화영역에서도 전문가 초빙) ○사업진행: 상반기(논의 및 기획), 하반기(실질적인 실천+취창업 진행) <상반기> -초기 자문 및 사업의 전문화 기여 필요 (재단에서의 투입) -참여자 선정(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지역단위로 협력체계 구축 <하반기> -취창업 진행: 수치화된 성과로 가시화. 대안적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함.
4. 관계자 (재원-기업, 후원자/파트너/재단)	○기업: '모델링' 요청,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화, 전문화 요청 ○파트너기관: 여성경제임파워먼트에 대한 이주여성의 욕구와 더불어, 단체별/지역별 시도는 이루어짐. 그러나, 물적자원의 투입없고, 집중화된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고 '훈련'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역량강화의 프로그램으로써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취창업의 목표로 가시화된 성과, 유통, 마케팅등의 전문화가 부족한 상황
5. 개선사항 (2010건의사항 +개척해야할 부분)	○재단 내 실무역할 정리 -1~2월 초기셋팅: 배분팀+여성경제사업팀 공동으로 진행 -2월 기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무역할 정리 필요
기타	

11 생명보험기금 - 다문화가정출산지원사업

사업명	생명보험기금 - 다문화가정출산지원사업
1. 이슈, 트렌드	○출산지원 -가정별로 출산용품 지원, 실비를 지원하는 형식보다 출산교실, 영

	양제 제공, 통역이나 진료 등의 서비스 형태의 지원(출산교실, 진료서비스, 방문서비스, 산모도우미, 통번역서비스 등) -주로, 20만원의 비용지원(보건복지부 지원하지 않음) -분만비 지원은 있지만, 제왕절개 지원은 많지 않음.
2. 목표 (가치,철학)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특히, 제왕절개/ 산후관리비 지원 등) ○대상자를 찾고, 후속관리가 가능하도록 단체와 연계
3. 진행계획 (사업내용)	○4월, 7월, 10월 1년동안 총3회에 걸쳐 접수받고 진행. ○분기별로 나누더라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심사기준에 맞을 경우 기금이 3회차가 되기전에 모두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필요.
4. 관계자 (재원-기업,후원자/파트너/재단)	○기업: 최대한 많은 인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
5. 개선사항 (2010건의사항 +개선해야할 부분)	○직접지원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교육이나 후속연계 등의 계획이 예상 어려움 있음 ○단순지원사업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찾는 것이 필요: 교육지원, 자료제공(출산관련 상식 '산모수첩' 등)
기타	○대상자에게 '피임교육'이 필요함: 다문화소위 의견

12 물품나눔

사업명	물품나눔
1. 이슈, 트렌드	○물품나눔을 통한 사회공헌(기업): 주로 재고품, 판매가 어려운 물건 등을 제공 ○단순물품제공도 많음.
2. 목표 (가치,철학)	○여성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
3. 진행계획 (사업내용)	○3,6,9,12월로 분기별로 물품나눔할 기부처 접수마감⇒4,7,10,1월에 공모를 통한 단체에 물품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기부처: 특정시기에 여성재단에 물품나눔을 하도록 구성 ○배분처: 단체를 지정하여 미리 의향을 묻는것이 아니라, 단체가 신청하여 선정과정을 거치도록 과정 마련(단, 정말 간단한 프로세스와 보고방식이 되도록 구성) ○분기별로 선정위원회 필요
4. 관계자 (재원-기업,후원자/파트너/재단)	○후원자: 물품나눔의 특성상 수시로 물품을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눔에 참여하게 되므로, 즉시 진행될것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기업의 경우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연말 기부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나눔에 동참하는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특성화하여 명절나눔

	등의 형식으로 테마화하여 특정집중시기에 물품나눔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및 실무진행 필요(기흥팀과 논의하여 합의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 필요) ○재단: 재단 내에서는 진행되는 물품나눔은 개인물품은 (물품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달리하되) 되도록 취급하지 않고, 수량이 어느정도 확보된 이상의 물품후원을 진행필요. (수시나눔은 되도록 진행하지 않도록 구조화)
5. 개선사항 (2010건의사항 +개선해야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럴드경제같은 식의 소소한 물품나눔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임. 이는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
기타	

13 다문화가정 사진전

사업명	다문화가정 사진전
1. 이슈, 트렌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정적인 이미지(가정폭력, 결혼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이 존재하고, 이는 또다시 다문화가정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영향을 미침. ○사진전은 다문화사업을 해온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논리와 말이 아닌 사진의 감동으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데 사회적 기여
2. 목표 (가치,철학)	○사진전의 이슈화 : 의미의 전달, 사진전의 기획홍보(대중적 홍보) ○다문화가정, 다문화의 긍정적 의미, 영향,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등을 홍보 ○사진전에 참여했던 가족들 등 그동안의 촬영대상, 현지 가족?, 후원처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 진행계획 (사업내용)	○사진촬영: 2월 스튜디오 촬영으로 마감(연예인+다문화가정 2세) ○사진전 준비: 도록, 행사, 부대행사, 초대가족, 초대연예인, 정재계인사, 홍보전략, 지방전시회 기획, 한국여성재단 5월 캠페인과의 연계방법 모색 등
4. 관계자 (재원-기업,후원자/ 파트너/재단)	○기업: 현재 사진전을 일회성 사업으로 판단하여 후원하지 않음. (현재 기금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 ○재단: 관계자 간, 사진전에 대한 중요도 및 이해가 다른 부분. 기흥팀+배분팀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기가 왜 어려울까.???
5. 개선사항 (2010건의사항 +개선해야할 부분)	○구체적인 사업진행 필요 ○팀을 넘어서는 운영, 진행을 할 때에 필요한 서로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하여 재단 내 업무협력의 강조? 필요.

기타	
----	--

14 기타.

사업명	기타 - INWE, 학습용품지원사업 Happy Smile, 모금TF
1. 이슈, 트렌드	
2. 목표 (가치, 철학)	
3. 진행계획 (사업내용)	-INWE: 재단의 국제활동 강화 및 네트워크를 위해 가입을 신청한 상황(현재 답변없음). 이의 가입을 상정함과 동시에 재단이 국제협력을 한다는 것, 재단 간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 INWF에 가입해서 여성재단이 취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잊점들을 구체적인 사업화해내야 함.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국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이 드러내야 할 것임) -학습용품지원사업: 117명 신청에 102명이 선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잘 진행되었고, 마무리를 잘 하면 될 것임.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 하나마다의 케어가 필요하고, 실무행정작업이 많은 것은 사실임. -모금TF: 구체적인 활동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초기 셋팅중. 모금TF를 왜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한 활동의 결과로 무엇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음.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TF논의에 활력이 불지 않음. 참여에 고민이 많이 됨.
4. 관계자 (재원-기업, 후원자/ 파트너/재단)	
5. 개선사항 (2010건의사항 +개척해야할 부분)	
기타	

[별지] 전체 재단 개선사항(김은경)

1. 배분팀과 여성경제사업팀 간의 역할 규정 및 협력체계

-여성경제사업팀의 사업영역 및 경계의 모호성: 직업창업등과 연계되면 여성경제사업팀이 진행하도록 구조화? 주제는 여성경제자립, 경제임파워먼트라고 한다면, 모두 포괄할 것인지. 논의필요.

-다문화가정 직업창업프로그램을 여성경제사업팀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 진행 2월중 결정 필요.

2. 팀내 연계성 강화. 실행력 담보. 논의수준을 높일 필요.

-조세현 사진전 진행이나, 모금TF등을 진행의 경험: 시너지 보다는 내부를 설득하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팀별로, 다른 팀원과의 관계성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들은 앞으로도 많을 테고, 많아질텐데. 이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왜 진행이 잘 안되는지.

3. 기능적 업무분장에서 기능+주제별 업무분장 필요

-재단의 활동가로서, 장기적으로 재단에서 활동했을시의 보편적인 임금이나 근로복지체계 등은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업무를 골고루 하는 것 보다는 보다 주제집중형으로 편성하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고민의 깊이와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필요(예: 통합형 사업-다문화다함께 등)

-큰 미션으로 나누기 어렵더라도 묶을 수 있는 현재 큰 덩어리로 진행되는 성평등/다문화/글로벌/미혼모 등은 범주화하여 주제심화가 가능하도록 묶어주고, 나머지 업무와 더불어 수시로 진행되는 업무등은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 필요.

4. 과장의 역할에 대한 조직적 고민

-책임과 권한.

5. 배분팀의 운영개선

-각 사업별로, 후원처별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영역과 성과들을 각 사업의 성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고 연계된 다른 사업과의 영향/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며 진행 -> 다문화배분소위의 다문화사업의 각 사업별 영향력 그리기. 배분사업보고서를 각 후원처별로 발간하지만, 내부적이더라도 큰 배분사업의 틀 안에서 고민하는 노력 필요.

-배분관련 리스트(배분위원회, 파트너단체, 배분사업현황 등) 통합하여 전체관리가 필요함. (MRM이용 혹은 팀장 공유폴더를 활용하여 최근으로 업데이트 혹은 각자 필요시, 각자의 데이터가 아닌 배분팀 통합으로 활용)